

| 경인칼럼 |



최창협
객원논설위원·용인대 교수

정치란 시민사회에서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내는 가능한 예술이다. 법치는 공동체적 합의인 법률의 강제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정치적 해결과 사법적 처리는 영역을 달리 하지만 상호대립적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사회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중의 하나가 정치가 갈등조정이라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법치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관행이다. 정치가 법치의 명분으로 명시적으로 정치이기를 포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기반하고 있는 정치와 법치가 선순환의 구조를 갖기 보다는 상호배타적으로 작동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국사회에서 정치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갈등조정에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정치는 상이한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이는 집단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이다.

해법없는 '세월호 특별법' 輿정지력 발휘 한계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유가족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기본방향에 있어서 지향점을 같이 한다. 그러나 각론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유가족과 이에 선포 동의하지 못하는 야당의 어중간한 입장, 이는 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여당의 생각에서 접점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여야의 재협상 결과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한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시 꺼내들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하는 문제는 세월호 특별법의 쟁점이 특검 추천권을 여야에 배분하는 나야의 문제로 가닥이 잡히면서 수그러들었던 문제다. 그러나 유가족이 다시 초강수를 둔 것은 여당은 물론 야당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40일이 넘게 단식을 하고 있는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길 원하지만 거절당하고 있는 마당에서 유가족들이 재협상 결과를 선포 받아들이는 명분도 마땅치 않다. 정치가 다시 가동돼야 할 대목이다. 유가족이 야당과만 꼭 협상의 파트너가 돼야 하는 것도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진다. 야당과 유가족이 대치의 모양새가 되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더 이상 재협상은 없다는 여당의 강고

한 입장으로 볼 때 진전된 내용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제 여당이 나서야 한다. 쟁점은 비교적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유가족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진상조사위 부여를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이 나선다면 특검 추천권으로 쟁점을 모아갈 수 있을 것이

법의 행위인자 유가족임을 인식할때 정치는 작동

다. 여야협상의 틀을 넘는 정치가 나서야 된다는 의미다. 유가족의 아픔에 진심으로 다가가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유가족이 이미 정치화됐다는 일각의 인식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관련된 전체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정형화된 단견의 소산일 뿐이다.

5월19일 대통령의 담화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유가족의 적극 동참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전의 5월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과의 만남에서 "진상규명에 유족 여러분의 역할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장을 지켜보신 유가족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영오씨가 대통령 면담을 신청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문제라 대통령이 나설 일은 아니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으나 특별법이 국회 입법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경제관련 입법이나 민생관련 입법에 대해 국회를 비판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논리적 타당성 여부를 떠나 청와대가 일사적 정정적

청와대, 유가족 설득할때 물꼬 트이는 계기 마련

사안을 대하는 정치적 문법에서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정치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법치에 천착하는 모습과도 거리가 있다. 세월호 참사를 보는 관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다. 세월호 특별법의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당의 지도부가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 청와대가 유가족을 적극 설득하는 모습을 보일때 신뢰를 쌓을 수 있다. 세월호 특별법의 해법의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세월호 특별법의 가장 주요한 행위인자는 유가족임을 인식할 때 정치가 작동될 수 있다.

[사설]

야·야 갈등으로 좌초 위기 놓인 경기 연정

한국적인 정치풍토에서 연정은 무모한 시도인가. 경기도 남경필 지사가 의도했던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연정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정책협약이 이뤄지면서 순항이 기대됐던 새정치연합과의 경기연정은 지난 25일 흥천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도의원연찬회에서 사회통합합부지사 파견문제를 부결시킴으로써 결말이 났다. 남 지사가 제안한 연정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당초 새정치연합은 남 지사의 연정제안에 20여개 사당의 정책협약을 하고 야당 추천 부지사를 천거하기로 했었으나 이를 거부해 연정은 물거품이 된 것이다.

도민들이 우려했던 정치권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로인해 그간 미뤄왔던 도정과 관련한 인사 등 연정을 전제로 추진해온 도정 전반도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앞서 국회에서 경기지역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16명은 야당 몫의 사회통합 부지사 파견 등을 포함한 연정참여 실행안을 결정했었다. 국회쪽과 도의회가 정반대 입장에 선 것이다. 경기연정이 새정치연합내에서 갈등의 기로에 선 것은 남 지사가 부지사직에 야당인사를 선임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야당내에선 야권 부지사의 선임은 자칫 '남경필 띄워주기'로 비쳐질 수 있다는 반

대어론과 도의회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야당의 무리한 요구도 수용한다는 입장에서, 연정을 전제로 조직개편을 서두르던 경기도는 황당한 반응이다. 도지사 취임 2개월동안 준비해 온 연정이 무산되면서 도정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야당의 요구인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도 지연돼 행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지역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은 부지사직 추천과 함께 역할과 관련해 도정인사와 예산편성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권한이 그만큼 정치적 부담도 크다는 지적에 따라 도의회의 결정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도의회는 야권 부지사 선임으로 자신들의 입지와 역할이 상대적으로 좁아지고 부지사 결정의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쳐내지 못한 것이다.

경기도의 연정안은 도의원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이 묶여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남 지사가 의도했던 '경기도뿐 아니라 정치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는 아·야간의 갈등으로 좌초될 운명이다. 정치는 현실이다. 상황판단 없이 명분만 갖고 밀그림을 그리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다.

인천 수능 상승세를 살려야 한다

지난 월요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가 시작됐다. 어느덧 대학입시에 출사표를 내는 시즌이 시작된 것이다. 인천은 대입수능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전국 하위권이라는 명예를 벗어 나지 못해 왔다. 특히 2011년부터 3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차지한 '만년 꼴찌' 신세였다. 그런데 작년에 비로소 이 명예에서 벗어날 신호가 나타났다. 즉 2014년도 대입수능에서 인천은 수능 상위등급인 1·2등급 점유율이 평균 8.2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위로 올라선 것이다. 더욱이 성적 하위권인 8·9등급의 점유율도 평균 10.6%로 전국 9번째였다. 이는 전년보다 한 단계 높아진 실적이어서 향후 상승세에 대한 기대를 높이기도 한다.

교육에 대한 평가를 대입수능 실적으로만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최하위에 처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도 무책임한 처신이다. 인천의 학부모치고 인천의 낮은 학력수준을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학력저하 문제는 비단 교육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인천시민들의 지역 애착심과 응집력을 낮추는 원인이 된다. 인천에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적정 인천에서 거주하지 않

고 서울로 이전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인천을 떠나는 시민들은 인천의 교육수준에 만족하지 못해 이주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과학적인 통계가 아니라고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본다. 오랫동안 관찰된 상식선의 문제인 것이다. 교육문제는 시민의 정주지역 선정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인천에서 유독 낮은 '지역애의 뿌리내림'이 논란거리가 되는 이유는 교육의 불안정과 낮은 학력수준에서 나온 것임을 가깝게 보면 안 된다. 많은 인천시민들은 인천이 도시로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한다. 흑사라도 그 발전이 기존 도심과 불균형을 초래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는 있지만 종합적인 발전 가능성은 동의하는 편이다.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고민이 바로 학력저하 문제다. 물론 '중·고교생에게 학업만이 중요한 가'라는 질문이 있다는 것은 잘 안다. 그러나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에게 학력문제는 현실이다. 이론적 논쟁거리가 아니다. 자녀들이 교육환경에 의해 좌절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부모는 없다. 인천 교육계는 모처럼 시작된 수능 상승세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학부모에게 안정감을 주기 바란다.

정치와 법치

| 기고 |



장태한
UC 리버사이드 대학교 교수

인천 출신 영웅이 있다. 한국인 최초의 파일럿 이응호(George Lee)다. 이응호는 1896년 제물포에서 출생한 인천인이다. 소년 이응호는 일곱 살이 되던 1903년 미국으로 떠나는 아버지 이두형을 따라 태평양을 건너는 이민선 '갈릭'(Gaelic)호에 올랐다(인천 내리교회 자료에 따르면 정확한 출국일은 1903년 3월30일).

이응호는 어려운 이민생활 속에서도 독립운동에 지성을 다하는 아버지를 보며 자라났다. 그가 18세가 되던 1914년에는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신문이 운동 전쟁뉴스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이응호는 조종술을 배워 한국의 독립에 기여하고자 미군에 입대하기로 결심한다. 제 1차 세계대전을 맞아 러시아군이나 미군, 그리고 영국군으로 참전했던 다른 한인들처럼 전장에 나가 군사적 노하우를 익혀 후일 조

인천출신 영웅 이응호(조지 리)

국의 독립전쟁에 활용하려고 미군 파일럿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응호의 이러한 생각에 반대하는 아버지 몰래 수차례 미군 모병관을 찾아가 미군에 입대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미군 모병관은 이응호의 입대 희망을 일축했다.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 사회에서 아시안계인의 입대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1차세계대전이 격렬해지면서 미국도 아시아계의 군 복무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고 이응호는 미군에 입대할 수 있었다. 이응호는 미 육군 항공대 소속으로 훈련을 받고 파일럿이 되었다. 그는 제 1차 세계대전에 참전, 총156회 출격을 기록하는 전쟁영웅이 되었고 수천년 한민족 역사를 통틀어 최초의 파일럿이 됐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초의 파일럿은 1921년 일본에서 조종사가 된 안창남으로 잘못 알려져 왔다. 이응호는 안창남보다 3년전인 1918년 5월쯤 미군에 입대해 파일럿이 됐다. 대한민국 최초의 파일럿이 탄생한 날이다. 1921년 일본에서 파일럿이 된 안창남은 한국인으로서는 한반도 상공에서 첫 비행을 했던 파일럿으로 당시 한

국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인 최초의 파일럿은 안창남이 아니라 바로 인천인 이응호이다.

인천의 위대한 유산을 인천인들 스스로 무관심하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있는 듯하여 안타까울 뿐이다. 영웅은 찾아서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기억할때 비로소 발굴되고 영웅으로 추앙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새로 발굴된 인천 영웅들을 인천인들이 소중히 기리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최초의 파일럿 이응호는 인천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게을러 김영욱과 이응호와 같은 인천 영웅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제부터라도 모든 학교에서 인천 영웅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남긴 유산이 무엇이며 학생들 스스로가 인천인이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권유하고 싶다. 인천 이민사 박물관을 적극 활용하고 인천이 자랑할 수 있는 인물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현공풍수지리학회〉

현공풍수지리 강좌 안내

양택풍수 · 음택풍수
생활풍수 · 인테리어

현공풍수지리의 원리는 공간과 시간을 배합한 풍수학문이며 형기풍수(形氣風水)와 이기풍수(理氣風水)를 겸찰(兼察)하며, 눈으로 볼 수 없는 기(氣)의 정체를 1~9까지의 낙서(洛書)의 숫자로 환산하여 「디지털방식」으로 길흉화복을 판단하는 비법으로 배우기가 쉬고, 아울러 적중률이 매우 뛰어나 현존하는 풍수이론 중에 최고급이며 “동양철학의 꽃”입니다. 본 과정을 수료하면 음택(조상의 묘지와 납골당)과 양택(주택,상가,사무실,공장,건물,별장 등)의 감정과 추길피흉(趨吉避凶)하는 처방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풍수이론(이법)은 시간개념이 없는 단지 공간개념만의 이법이었으나 현공풍수는 시간과 공간을 함께 적용 판단함으로써 정확한 길흉을 예측할 수가 있어 이러한 좋은 이론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대한현공풍수지리학회의 소속 강사가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실시하는 대학 평생교육원 “현공풍수 강의”를 소개합니다. ★ 특 전 : 수료 후 대학교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접수중)

서울 동방대학원대학교

- 강의 장소 : 동방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 일 시 : 2014년 9월 1일(월) 개강
매주 월요일 저녁 6:30~
- 문의처 :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교육원
- 강 사 : **중산 류 호 기**
* 대한현공풍수지리학회 중앙회 부회장
* 동방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의교수

H/P : 010-5335-1899
학교 : 02-3668-9890

(접수중)

용인대학교 평생교육원

- 강의 장소 : 용인대학교 평생교육원
- 일 시 : 2014년 9월 4일(월) 개강
매주 목요일 저녁 6:30~
- 문의처 : 용인대학교 평생교육원
- 강 사 :
청욱 신 석 우(현 대한풍수문화연구소장)
만청 홍 윤 표(현 대한현공풍수지리학회장)

H/P : 010-8950-1886
010-6206-8988
학교 : 031-8020-2800

인천 가천대학교 평생교육원

- 강의 장소 : 인천 가천대학교 평생교육원
- 일 시 : 2014년 9월 5일(금) 개강
매주 금요일 저녁 6:30~
- 문의처 : 가천대학교 평생교육원
- 강 사 : **중산 류 호 기**
* 대한현공풍수지리학회 중앙회 부회장
* 현 가천대학교 평생교육원 외래교수

H/P : 010-5335-1899
학교 : 032-820-4111